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4면)

송파구의회 최상진·김안나·강정선 구의원, 삼전동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빚기” 행사 참석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도시 건설위원장, 삼전·잠실3동)과 김안나 의원(행정교육위원회), 강정선 의원(재정복지위원회)은 17일 (목) 삼전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오수희)가 주관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이른 오전부터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고 포장하는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렇게 준비된 '사랑의 송편'은 관내 취약계층 70가구와 경로당, 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구의원들은 송편 빚기와 포장은 물론 배달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홀로 지

내는 어르신 등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오수희 회장은 "정성껏 빚은 송편 한 접시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명절이 오하려 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께 우리 동네가 곁에 있다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주시는 부녀회원들과, 바쁜 일정에도 힘을 보태 주신 구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진 의원은 "삼전동 새마을부녀회는 명절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주민 스스로 만들어진 이러한 나눔의 문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적 뒷받침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안나 의원은 "송편을 빚는 손길마다 이웃을 향한 정성이 그대로 묻어났다"며 "명절의 참된 의미는 결국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다"고 말했다.

강정선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는 행정의 서류보다 이웃의 발걸음이 먼저 찾아내는 법"이라며 "오늘 배달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본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꼼꼼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전동 새마을부녀회는 명절마다 송편 나눔을 비롯해 김장 나눔, 밀착형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구성에 앞장서고 있다.

